

재래닭 불법종계장 퇴치운동 적극 동참 호소

한 협협력회(회장 이순오)는 지난 1월 15일 대전시 유성구 소재 그린하우스에서 업계 불황타개를 위한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 강구해 나갔다.

이 자리에 모인 회원들은 지난해부터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재래닭(일명 토종닭)의 가격하락으로 인해 모든 재래닭 기반이 붕괴직전에 놓여있다고 판단하고 '불법 종계퇴치운동'을 전개키로 하는 등 대책을 논의하였다.



▲ 재래닭 시장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인 한협협력회 회원들 - 우측 하단 세번째 이순오 회장

최근 거래되고 있는 재래닭 가격은 kg당 500~650원으로 생산비 1,500원의 절반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2월부터는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더욱 증가하면서 재래닭 업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사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 같은 근본적인 원인은 과잉생산에 있으며, 과잉생산의 주범은 종계검정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길러지고 있는 종계에 기인되어지고 있다. 국내 재래닭 종계의 적정 사육수수는 연간 약 50만수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70만수 이상이 사육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이중 20~25만수 정도는 종계검정을 받지 않은 종계장으로부터 길러진 병아리로 질병관리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국내 양계산업에도 큰 타격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였다. 이 자리에서 회원들은 불법종계를 생산하거나 공급을 받아 유통시키는 종계장이나 유통회사 또는 사육농가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주)한협축산에 신고하여 생산자, 소비자 단체들과 연계하여 강력한 제재를 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따라서 축산업 등록제가 이미 제정되었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백세미'와 같이 생산되는 재래닭의 불법 병아리를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들은 또한 위생개념을 도입한 도계법이 강화됨에 따라 재래닭 전용의 도계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일반 가든이나 식당에서도 직접 닭을 잡지 않고 도계장을 통해 위생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체계가 시급함을 강조하였다.(振)